

Ⅰ 최신산업간호연구동향 Ⅰ 본 연구는 2006년도 한국산업간호협회 연구지원 사업으로 수행되었음.

산업재해 추간판탈출증 환자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신 나 영 /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보건간호학 전공

본 연구는 추간판탈출증으로 현재 요양 중인 입, 통원 환자를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건강관련 특성, 작업관련 특성, 건강관련 특성이 산업재해환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결과, 연구대상자 203명의 평균 삶의 질은 119.38이었으며, 그 중 산업재해 추간판탈출증 환자의 삶의 질은 112.94, 건강보험환자는 143.37로 산업재해환자가 건강보험환자보다 삶의 질이 낮았다. 이는 산업재해환자들이 일반근로자에 비하여 스트레스 수준과 우울수준이 높고 사회적 지지가 낮으며(백기주, 1995), 일반근로자보다 신체화, 우울증, 불안, 공포, 공포불안, 신경증 등의 전신 증상을 많이 경험한다(차봉석과 박종구, 1986)는 결과와도 일치하며, 김정연 등(2001)이 산업재해환자에서 삶의 질 지수가 낮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 하였다.

산업재해환자에서 40대, 50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치료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서 건강보험 환자에 비하여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업무복귀와 건강회복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 또한 산업재해환자에서 건강보험환자에 비하여 많았다. 특히 산업재해환자에서는 수술을 2회 이상 실시한

경우가 건강보험환자에서보다 많았다. 산업재해환자가 건강보험환자에 비하여 추간판탈출증 관련하여 치료기간이 길고, 수술을 많이 실시하는 것은 질병의 정도가 더 복잡하며 중후도가 더 심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송지태(2005)의 연구에서도 동일 질병이라도 산업재해환자와 비산업재해환자는 질병의 중등도의 차이가 있다고 하였으며, 권순용 등(2000)은 재해인성 환자군의 추간판탈출증에서 요통의 빈도가 높은 것은 추간판탈출증 이외에 다른 척추질환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같은 결과이다. 이상욱(2003)은 척추질환 산업재해환자의 퇴원 시에 이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험 승인을 받은 경우의 환자는 평균 59일로서 건강보험으로 퇴원을 하는 경우보다 입원기간이 약 39일 더 길며, 고정술 등 수술 시행 후 퇴원하는 경우 건강보험환자들은 평균 17일 입원 후 퇴원하였으나 산업재해승인이 난 환자는 입원기간이 85.9일로 5배 가량 입원기간이 길다는 보고에서와 같이 산업재해 환자에서 치료기간이 길다는 것까지도 일치한다. 또한 산업재해환자는 휴업급여가 있어 요양기간이 길어진다(이경중 등, 1990)고 보고된 것으로 보아 결국 산업재해환자는

질병의 복잡성과 중후도에 의해 수술의 횟수가 많아지며, 이것은 환자의 보상심리와 같이 작용하여 치료기간이 길어진다고 볼 수 있다.

산업재해환자에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으로 치료기간이 길수록 삶의 질이 떨어지며, 업무복귀와 건강회복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경우에서와 퇴직한 경우에서 삶의 질이 낮았다. 이것은 건강회복 후 복귀할 직장이 없으므로 건강회복에 대한 의지와 기대가 없어진다고 볼 수 있다. 요통환자들이 직업에 복귀할 가능성이 치료 이후 6개월이 경과하면 50%정도이고, 1년이 지나면 20%에 지나지 않는다(Frymoyer, 1991)고 보고된 바 있으며, 실제로 산업재해로 인해 장애를 입은 근로자 중 56.8%가 실업상태에 있고, 원직장으로의 복귀 비율은 9.3%, 다른 직장에 재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운영하는 경우는 단지 19.1%정도인 것으로 보고되었다(옥금희, 2002). 고덕기 등(1998)은 입원기간별로는 6개월 미만의 경우, 직장복귀를 하겠다 와 하지 않겠다 는 응답자의 비율이 비슷해서 복귀 하겠다 는 의사가 51.9%이었지만 6개월~1년 미만은 33.3%, 1년 이상은 17.3%로 입원기간이 길수록 직장복귀 하겠다 는 근로자가 적었다. 이것은 치료기간이 길어지면 직장복귀에 대한 기대가 떨어져 업무복귀의 가능성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산업재해환자들에 있어서 재직상태가 건강회복 및 업무복귀에 중요한 요인으로 삶의 질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질병의 복잡성과 중후도가 높아(송지태, 2005) 수술횟수가 높고 치료기간이 길어져 결국 업무복귀의 가능성과 건강회복의 가능성이 줄어들고 삶의 질까지 저하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재해환자에서 나이가 많을수록 특히 40대에서 삶의 질이 현저히 낮았다. 연령과

삶의 질과의 관계를 살펴본 Mata 등(1996)의 연구에서는 다발성 외상환자들에서 삶의 질을 평가하였을 때, 연령이 높을수록, 특히 60세 이상의 연령에서 삶의 질 저하가 현저했다는 결과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60세 이상의 연령은 포함하지 않았으나 연령이 높은 군에서 삶의 질이 저하된다는 결과와는 일치하였다. 추측컨대 40대에서 삶의 질이 낮은 것은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건강보험환자에 비하여 산업재해환자에서 40대에서와 치료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삶의 질이 현저히 낮은 것 또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치료기간이 길어지면서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 부담감이 증가하여 삶의 질이 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산업재해환자에 있어서는 건강회복 기대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산업재해 추간판탈출증 환자에서는 재해로 인한 질병의 중후도가 높아 수술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치료기간이 길어지므로 건강회복 기대와 업무복귀 기대가 없어 삶의 질이 낮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산업재해환자의 치료기간 중 퇴직을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원직복귀 된 환자의 소속 사업장에 이득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산업재해환자의 원직복귀를 도와 건강회복 기대를 높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본 연구는 산업재해 추간판탈출증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산업재해환자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산업재해환자의 원직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겠다.

둘째, 치료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의

료기관과 공단간의 긴밀한 협조하에 적극적인 환자관리로 정확한 환자상태 파악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방법을 제공하여 건강회복과 업무복귀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셋째, 건강보험환자에 비해 더 복잡하고 중후도가 높은 산업재해환자의 상병의 특징과 치료기간에 대한 연구가 더 이루어 져야겠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보험 환자의 대상자

수가 작아 제외하였고, 건강보험환자의 대상자수 또한 산업재해환자에 비하여 작아 건강보험환자를 대표하기엔 무리가 있으며, 단일재해로 인해 발생한 추간판탈출증 환자뿐만 아니라 복합성 재해에 포함된 추간판탈출증 환자, 직업성 질환으로 발생한 근골격계질환으로 분류된 추간판탈출증 환자가 모두 포함되었으며, 요추, 경추에 대한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간판탈출증 환자의 통계를 일반화하기는 주의가 요구된다.

